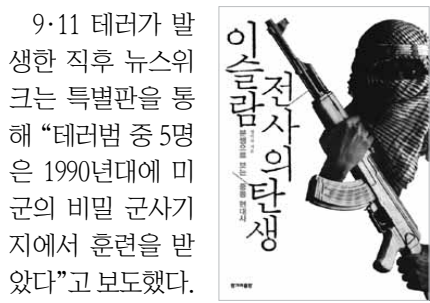


# 중동분쟁의 역사... 이슬람 무장세력은 누가 키웠나

## 이슬람 전사의 탄생

정의길 지음



9·11 테러가 발생한 직후 뉴스위크는 특별판을 통해 “테러범 중 5명은 1990년대에 미군의 비밀 군사기지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테러범 중 한 명은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에 있는 공군 대학에서 훈련을 받았고, 다른 테러범은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래켄드 공군기지에서 영어 교육을 받았다. 미국이 테러의 주범을 키웠다는 뜻이다.

## 1979년 미국의 아프간 프로젝트 소련에 맞선 무자헤딘에

### 엄청난 무기와 군사교육 지원

### 테러와의 전쟁 실패가 분쟁 키워

의 탄생’은 최근 파리에서 벌어진 ‘샤를리 에브르’ 테러와 IS의 일본인 인질 살해, 한국인의 IS 가입 파문 등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슬람 무장세력의 역사를 파헤친다.

이슬람국가(Islamic State)는 단순한 무장세력을 넘어섰다. 영국보다도 큰 영토, 모슬 중앙은행에서 확보한 5억 달러의 현금, 매일 1200만 달러의 세금과 석유 밀매, 정부군이 버리고 간 탱크 등 무기, 밀러드는 전사들이 이슬람국가의 기반이다.

기존의 이슬람 무장세력의 네트워크 조직인 알카에다, 주민들의 정권에 그친 탈레반 정부를 넘어서는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의 신기원이다.

저자는 무엇이 위협적인 이슬람 무장세력을 키웠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난 1979년 아프간 전쟁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베트남에서 패배를 맞은 미국은 아프간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당시 미국은 소련에 맞선 이슬람주의 세력(무자헤딘) 엄청난 무기와 군사 교육을 지원한다.

각국의 이슬람주의 정년들도 아프간 전쟁에 참전하고, 이슬람 부자들도 이들을 후원하기 위한 모금에 나선다. 오사마 빈 라덴도 이 시절 모금전문가로 활약한다. 아프간 전쟁 말기 한 전투에서의 승리를 통해 반라덴과 알 카에다는 영웅으로 부상한다. 9·11 테러 당시 미국 일부 언론의 보도가 오보가 아니었던 셈이다.

또 반미국가로 돌변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사담 후세인을 지원한다.

미국 정부의 실패한 테러와의 전쟁도 이슬람 무장 세력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철저히 냉전시대의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아프간에서 소련의 퇴치를 위해서 파키스탄의 핵 개발도 용인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왔다.

이는 미국의 최대 안보 현안인 핵 확산 문제를 야기했다. 파키스탄의 핵 개발은 이후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저자는 또 전쟁을 무기에 따라 분류한다. 1세대(창, 활, 칼), 2세대(총, 포), 3세대(전투기, 전차, 잠수함)가 있었다면 이제는 기습·타격 등의 게릴라전과 해킹 등의 정보전, 통신교란 등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해 무력화하는 4세대 전쟁의 시



‘이슬람 전사의 탄생’은 이슬람 무장세력의 역사를 파헤친다. 사진은 IS에 억류된 일본인 고토 겐지씨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세계인들의 마음을 담은 모습. /연합뉴스

대라는 것이다.

이는 한 나라에 그치지 않고 이슬람권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비대칭적 장기 국제전’이라고 부를 만하다. 저자는

9·11 이후 이슬람주의 세력과 서방 간의 분쟁은 이런 성격이 짙다고 강조한다.

〈한겨레출판·2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당황하지 말고 읽어보자 소송에서 살아남는 법

### 주기자의 사법 활극

주진우 지음



거쳐 2012년 12월 ‘시사 IN’에 실린 기사 때문에 검찰청에서 전화 한통화를 받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

다. 이후 변호사 선임, 소환, 구속영장, 재판, 판결 등의 과정을 세세히 보여주며 소송에 대처하는 자세를 알려준다.

갑자기 검사나 경찰의 전화를 받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저자는 변호사 선임하는 법, 목비권 행사, 실전 소환에 임하는 법 등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시한다. 마지막 7장 ‘우리를 범으로부터 보호하자’.

책 제목 그대로 한편의 ‘활극’을 보는 듯하다. 책에는 10여년에 걸쳐 한국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굵직한 사건들이 등장한다. 검사를 비롯해 대부분 실명 등장이다. 수많은 소송을 당하고도 주기자는 끄덕 없다. 대단하다. 각종 비리 제보 환영. 책의 마지막 문구다.

〈푸른숲·1만4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저 뚱뚱한 남자를 죽이겠습니까? = 다섯 사람이 철로에 공공 무어 있고 제동장치가 고장 난 폭주 기관차가 돌진해 오고 있다. 신호 조종기를 돌려 기차를 지선으로 보내려는 참나 뚱뚱한 남자가 지선의 선로에 묶여 있는 것이 보인다. 다섯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차의 진로를 바꾸면 그 남자는 죽는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영국의 대중 철학자 데이비드 에드먼즈는 당신이 피할 수 없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마·1만5000원〉

▲DEO의 시대가 온다 =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 특성과 원칙을 받아들이며 시대를 호령하는 새로운 영웅 디자인경영자(CEO·Design Executive Officer)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기업 문화를 바꾸고 세상을 주도하는지 살펴본다. 저자는 전통적인 CEO가 최첨단을 달리는 직원들을 이끄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세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DEO 8인의 인터뷰도 실려있다. 〈마일스톤·1만6000원〉

▲독재자와 시장경제 =북한의 3대 세습은 정상 궤도에 들어선 것 같다. 이제 어떤 언론도 감정은 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 기조는 지난 MB 정부와 변함없다. 이러한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남북관계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책은 이런 평행선의 균형을 깨고자 한다. 무력통일론과 흡수통일론 프레임이 벗어난 제3의 통일론을 제안한다. 〈한울아카데미·1만6000원〉

## 어린이 책

▲도대체 뭐라고 말하지? =국어 교과서 속 비슷한 말부터 낱말까지 무심코 사용하는 낱말들의 뜻을 우리는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틀리다’와 ‘다르다’, ‘너머’와 ‘넘어’ 일상생활에서 교과서까지 흔히 쓰지만 아이들에게는 알송달송한 우리말 표현을 재치 있는 이야기와 그림으로 알려준다. 〈한울수북·1만1000원〉



▲뽀꾸기 아이들 =아빠나 혹은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도 환경이 좋지 않아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다.

그런 친구들을 잠시 키워주는 집을 위탁가정이라고 한다. 위탁가정에 맡겨진 주인공 효주처럼 잠시 외롭고 힘든 순간이지만 이겨내고 어디에 있던 나 자신을 사랑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동화다. 〈아이앤북·9500원〉

▲눈은 누가 만들어요? =너도밤나무 숲에 사는 두더지 가족의 일상을 사계절에 걸쳐 잔잔하게 그린 작품. 느긋한 아빠 두더지와 여유롭게 취미생활을 즐기는 엄마 두더지, 열세 마리의 새끼 두더지들이 등장한다. 따스한 봄날, 막내로 태어나 세상

구경을 한 쌍둥이, 영민이와 푸푸니가 처음으로 접하는 놀라운 세상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책과공나무·1만원〉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아이들 스스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림책. 친구와 놀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뒷구멍 장난치는 것이 재미있게 노는 것으로 잘못 아는 친구들이 종종 있다. 개구쟁이 꼬마 돼지 피로가 친구들과 놀기 위해 변해가는 모습을 재미있게 그려냈다. 〈곰터·1만1500원〉

#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홍보지 및 판촉물

●전단지

●현수막

●상패

●상패

●전단지

●각종 인쇄물

●현수막

●각종 인쇄물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